

2020
즐거로운 송실생활
에세이 공모전
우수사례집

2020 즐거로운 송실생활 에세이 공모전 우수사례집

2020
즐거로운 송실생활
에세이 공모전
우수사례집



2020

즐거로운 송실생활
에세이 공모전
우수사례집



2020
슬기로운
송실생활
에세이 공모전
우수사례집

CONTENTS

01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더 잘 할 수 있어요. 철학과 김기문	06
02	외부 교육을 통한 학점 취득 및 실무 경험 쌓기 컴퓨터학부 노수빈	11
03	성공적인 온라인 학습 방법 영어영문학과 박지윤	19
04	슬기로운 학교생활을 위한 나만의 꿀TIP 경제학과 배현규	26
05	Ideas Worth Spreading 경제학과 이승희	34
06	휴학 없이 인턴을 할 수 있다? 학점연계 인턴십! 글로벌미디어학부 조유경	41
07	송실대학교 홍보대사 미소(MISO) 14기 컴퓨터학부 함정완	47
08	대외활동을 시작하는 방법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현민서	54

01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더 잘 할 수 있어요.

철학과 김기문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2학기, 졸업을 코앞에 둔 인문대 학생입니다. 이 글은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마음으로 저의 4년간 경험한 대·내외 대외활동 및 수상 경험에 관한 노하우를 조금 적어, 학우분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적은 에세이입니다. 더불어 본 에세이를 읽으시는 학우분께서는 이미 대외활동에 관한 관심과 적극성에 부족함이 없으시니, 제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다는 어떻게 했고, 어째서 했는지를 보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대외활동 및 공모전에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를 적어보고자 합니다. 수상(AWARDS), 커리어(CAREER), 장학금(SCHOLARSHIPS)입니다. 세부적으로 첫째, 대외활동입니다. 어떤 대외활동을 선택하는 게 좋고, 어디서 찾아야 하며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입니다. 둘째, 교내 활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활동들을 하면 좋은지, 추천하는 활동은 무엇이고, 어떤 활동이 있는지 어떻게 아는지입니다. 끝으로, 장학금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학금은 대·내외 활동을 충실히 했다면 따라온다고 말씀드리고 싶

- 20.10.21. 최우수상(1위), 송실대학교 INNO-SCHOOL 프로젝트(총장배), 송실동학들
 - 20.02.21. 최우수상(1위), 송실대학교 INNO-SCHOOL 프로젝트(총장배), 팔은교육자
 - 19.12.12. 감사장 수상, 관악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 19.12.12. 우수논문상, 철학과 논문경연대회, 조성계
 - 18.11.30. 장려상, 송실대학교 2018학술논문경연대회, 송실대학교(총장배)
 - 18.07.10. 장려상, DDE(가상계열합원)공모전, 송실대학교(총장배)
 - 17.09.22. 입상, 송실광장 우수 토론자, 송실대학교
- CAREER.**
- 19.03.01~20.12.21. 이화여대, 포교활동교실 조교, 이화여자대학교 철학연구소
 - 20.11.25. 미술문답 공문장 3차, 동적미술지원센터, 민민 협약기관 조성 네트워크 주관
 - 20.11.11. 미술문답 공문장 2차, 동적미술지원센터, 민민 협약기관 조성 네트워크 주관
 - 19.09~20.08. 행사운영사업부 15기 팀원, 대한민국대학생교육기부단 중앙사무국
 - 20.07.20. 관악'자' 출간, 종교생 대상 발표형, 보이는 라디오
 - 20.07.20. 관악구 우수봉사자 선정
 - 20.06.04. 동작구 인문 협치 분야별 2차 속리문장, '사랑과 사명을 잇다' 송실대학교 대표 참석
 - 20.04.16. 동작구 시민참여 온라인 공문장 '팔은교육자'로 참석
 - 20.03.-20.12. 명예위원, 송실대학교 학군단(ROTC)
 - 20.02.27.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 정책합치 부분, 사업계단
 - 20.02.12. 솔리언트대상상, 지역중,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19.09.09. 자기설계융합관련 관련 학교 대표, 스페셜 리포트, 대학거닐(업지) 기자, 19년 10월호
 - 19.03.16~19.12.31. 관악전로직업지원센터, 관악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 19.03.01. 직전장교 후보생, 송실대학교 학군단(ROTC)
 - 17.03.01.-17.11. 인문대학 학생회 산전국환
- SCHOLARSHIPS.**
- 20.10.21. 송실동문회 특별장학금
 - 20.09.15. 학술우수장학금, 다리아프벤트(INGO 단체)
 - 20.08.31. 부남인재장학금, 부남장학재단
 - 20.05.07. 송실특별장학금, 송실대학교 송실문화회
 - 20.03.04. 학술우수장학금, 다리아프벤트(INGO 단체)
 - 20.01.23. 대학혁신지원장학금, 송실대학교 교수학습혁신센터
 - 20.01.15. 교육지원장학금, 송실대학교 철학과
 - 19.12.10. 봉사장학금, 송실대학교 총학생회
 - 19.10.10. 진리상-학술장학금, 송실대학교 교수학회
 - 19.06.28. 봉사장학금, 송실대학교 학군단(ROTC)
 - 18.12.26. 친구추천장학금, KT&G + 송실대학교
 - 18.05.29. 특별장학생, UnitedBoard scholarships

습니다. 다만,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장학금입니다. 나는 안 될 거라는 생각으로 지원하지 않거나, 어떤 장학금이 있는지 모르거나 준비되지 않아 받지 못하는 학우분들을 위해 조금 적고자 합니다. 옆의 사진은 해왔던 활동들에 관해 대략 정리해둔 사진입니다. 무언가 많아 보이지만, 작은 것까지 다 적어서 많아 보일 뿐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대외활동입니다. 저는 '19년 3월부터 1년간, 관악진로직업지원체험지원센터 서포터즈 1&2기로 활동하며 멘토링 및 진로교육을 했고, '19년 8월부터 한국대학생멘토링 연합과 대한민국 대학생교육 기부단에 입단하여 '20년 8월까지, 1년간 활동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교육계열에 대한 관심으로 교육봉사



및 멘토링 관련 대외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교육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디서 대외활동을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외활동을 골라야 하는지는 같습니다. 여러분이 대외활동을 하고 싶으시다면 U-Saint, 링커리어, 대학내일, 올콘이라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둘러보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에브리타임 홍보 게시판에도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대외활동은 보수를 주는 것. 대학생으로만 이루어진 단체가 아니라 담당자 선생님이 계신 것. 활동증명서 혹은 봉사활동이 인증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대외활동을 하면서 값진 경험들을 얻겠지만, 누군가가 인정해 준다면 더욱 좋기 때문입니다. 만일, 경쟁률이 높거나 유명한 대외활동을 하고 싶으시다면 비슷하거나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다른 대외활동을 하며 경험과 경력을 쌓고 도전하는 것을 추천하며, 만약에 이번에 떨어졌다고 해서 다음에 Control + C, Control + V 하지 말고, 작년에 떨어진 이후로 어떤 활동들을 해왔고, 더 준비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분명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낙방했고, 많이 성공했으니 한두 번 떨어진 것에 연연하지 말고 다시 도전해보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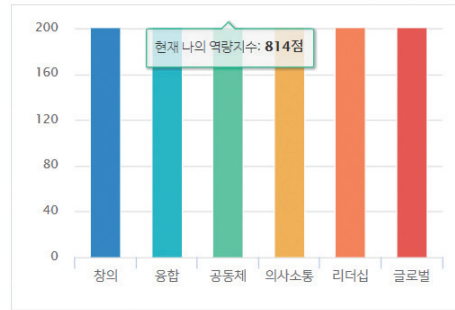
합격할 확률을 높이는 데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감 일정에 쫓겨서 신청하거나 시간을 줄여가며 자기소개서를 적기보다는 시간이 날 때 미리 훑아보고 준비하기. 인기가 높은 대외활동들은 대개 역사와 전통이 있고, 홍보를 잘하지 않으며 모집 기간도 짧아 쑥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대외활동은 매년 비슷한 시기에 선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에 시간이 있을 때, 작년에 모집한 일정이 언제인지 미리 알아두며 메모해두고 전년도 자기소개서를 미리 작성해보며 연습을 해두면 효과적입니다.

둘째로, 교내활동을 먼저 하기입니다. 아래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에는 '경력 있는 신입'과 같이 비슷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원하는 대외활동이 많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진행하는 대외활동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내가 가고 싶거나 하고 싶은 활동이 그런 것을 원한다면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교내활동으로 경력을 미리 쌓아보는 게 좋습니다. 교내활동은 첫 스타트를 끊기 좋습니다. 어느 정도 개괄적인 활동들을 알아보기도 좋고, 학교 이름이 붙은 교내활동들은 다른 대외활동 지원의 큰 밑거름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대내 활동, 교내활동에 관하여서입니다. 저는 대외활동보다는 교내활동을 정말 추천합니다. 특히 학교 내에 있는 공모전을 통해 실력과 경험을 기르고 외부 공모전에 도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교내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도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할 수 있을 겁니다. 교내활동은 성실하게 교내 FUN 시스템과 U-Saint를 초록창 보듯이 보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활동들을 보니, 나중에는 노트북을 켜면 저절로 U-Saint, Fun 시스템, 장학금 페이지를 한 바퀴 순회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습관처럼 보시길 추천해요. 교내 프로그램에는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교내 지원 프로그램 참여하며 학술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고, 좋은 동료들을 사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역량 지수



위의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꽤 많은 교내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강력 추천하는 교내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인상 깊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Inno School project'(이하 이노스쿨)입니다. 저는 대외활동 대부분을 3학년이 되어서야 했는데, 그 배경에는 이노스쿨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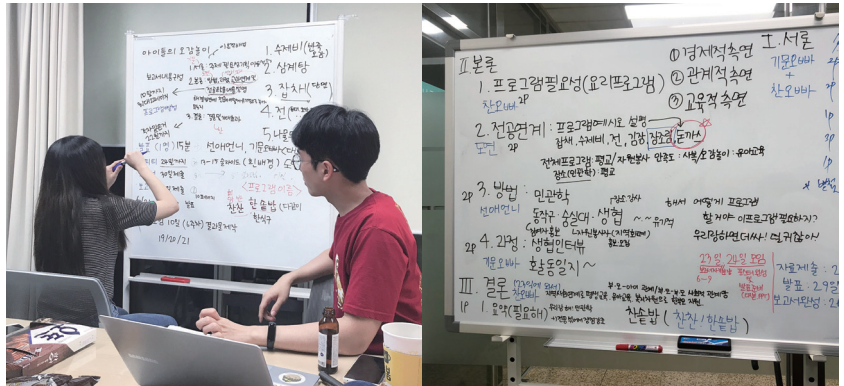
이노스쿨을 하면서 학술적인 갈급함을 느꼈고, 그것을 채우면서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노스쿨에 대해 설명하면, 2019년 2학기에 처음 도입되었고, 현재 3기가 진행 중인 Inno School 프로젝트이며 한 학기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Inno School 프로젝트가 자신의 전공에서 배운 학습내용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문제나 새로운 이슈를 개발하고 실현 및 해결할 수 있도록 탐구하는 프로젝트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로, 여러분이 원하는 팀을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3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이 제공되어 매번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로 최소 6회 이상의 팀 활동에 참여하고 활동 보고서를 제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면 된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괄적인 소개보다도 직접 참여해본 입장으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소개해드리고 싶어 탐구주제에 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처음 이노스쿨 프로젝트의 탐구 방향성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와 닿지 않는 학우들이 더러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그랬기에 두 번에 걸쳐 이노스쿨에 참가하며 배우고 느꼈던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탐구영역과 탐구주제 방향성 설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노스쿨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지역사회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기획'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어떤 완성된 결과물 혹은 시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아이디어를 기획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전공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다양한 전공지식이 충분히 활용 및 적용이 된 문제 해결 과정과 산출물을 제시하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송실대학교가 속해있는 동작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골똘히 고민해 보고, 내가 배운 전공과 동료들의 전공을 활용해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그것을 소개하고 설득하며 기획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게다가 이노스쿨 프로젝트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께서 기획하고 제작한 결과물이 실제 지역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 동안 Inoo School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은 나의 전공을 탐구하는 자세가 확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전공을 활용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탐구활동 순서를 고려하며 팀원들과 한 단계씩 체계적으로 학제 간 교류를 통해 진행한 탐구는 스스로의 전공을 더 깊게 탐구하게 도와주었습니다. 더욱이 학제 간 교류를 통해 저희 팀이 선정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한 부모가족이 겪는 문제점을 보다 다원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고, 각각의 전공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절충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성공을 향해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하나의 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큰 사실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저는 팀별 과제라면 지긋지긋하던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공부는 홀로 하는 거로 생각했고, 팀원은 혼자 바가지 쓰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노스쿨을 통해 스스로 역량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팀플레이를 배웠습니다. 진실 된 탐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와 비슷한 관심을 가진 동료들과 어떻게 하면 내가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고, 그것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대학에 온 의미를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노스쿨의 연장선으로 여러 가지 동작구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교육에



관해 관심이 높은 제게는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동작구 온라인 공론장에 참석해보고, 2020 서울특별시 민관 협치 사업 공모에 지원해보고, 동작구청 속 의론장에 참석하는 등 재미있는 일들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학우분들이 스펙을 위해 대외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스펙을 쌓고 경험을 쌓는 것도 이유 중의 하나이지만, 대외활동은 즐겁고 보람찬 대학생활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외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도 본인이 재미를 느껴야 합니다. 하는 활동이 재밌건, 함께하는 친구와 같이하는 것이 즐겁건, 본인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어 만족스럽든지 즐거운 대외활동을 해야 오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지금하고 있는 대외활동이 재미없다면, 빨리 다른 대외활동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완전히 취미를 위한 대외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물론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며 활기찬 시간을 보냈지만, 칵테일 제작 서포터즈나 바리스타 활동과 같은 대외활동을 해보지 못한 것이 한처럼 느껴집니다.

끝으로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몇 가지 팁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었는데 알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바를 조금 적어 보고자 합니다. 대외활동과 마찬가지로 장학금은 매년 비슷한 시기에 뽑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아주 유리합니다. 교수님께 미리 추천서를 상세하게 부탁드릴 수도 있고, 자기소개서나 서류도 미리 준비해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각 장학금마다 1학년만 뽑는 것, 2학년만 뽑는 것. 활동들을 우선시하는 장학금, 소상공인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역 연고 장학금, 가계소득을 우선시하는 장학금 등 정말 많은 장학금이 있으니 꼭 미리 찾아

서 나에게 맞는 장학금은 무엇이고 언제 모집하는지 찾아보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1학년 2학년 때 뽑는 외부 장학금 중에는 졸업까지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찾아보느냐? 교내 장학금은 U-Saint 장학 탭에서! 교외장학금은 드림스폰(DreamSpon)이라는 사이트에서 찾아보기를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보통 모집공고가 2주 전에 뜨지만, 시험 기간이니 과제니 꼭 그 기간과 겹치곤 합니다. 그러니 전날에 밤새 워가며 적거나 지원을 포기합니다. 그렇기에 미리 준비한다면 정말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인지 한번 장학금을 받은 친구들은 정말 여러 번 받지만, 받지 못하는 친구들은 한 번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대내외 활동도 열정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지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뭔가 당연하게 들릴 것 같아요. 지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냐? 여러분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되겠어”라고 생각하고 지원하지 않는 것과 “일단 내보재”라고 마음먹는 사람과는 정말 다릅니다. 저 또한 2.72를 받고도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비단 장학금만이 아니라 대외활동, 대내활동 모든 활동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건 부딪혀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학금에 지원하면 무조건 붙는다.”라고 말 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붙어요. 왜냐하면 장학금을 지원할 때 필요한 서류와 자기소개서들이 떨어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서류들을 잘 정리해서 가지고 있다가 다른 장학금에 지원할 때, 예전의 자기소개서를 다시 읽어보고 보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웃기게도 내 자기소개서를 다시 보면, 정말 못 썼다는 생각이 절로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로부터 수정을 하고, 부족한 점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 장학금을 준비할 때 들었던 시간보다 훨씬 적게 듭니다. 게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나에게 꼭 맞는, 나를 위한 장학금이라는 장학금이 찾아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그때 꼭 잡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외활동 및 장학금 자기소개서 작성요령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딱 5가지 단계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 비전(내가 하고 싶은 거)을 적

고, 내가 해온 것(해온 활동들). 내가 지금 활동 중인 것들 그리고 내가 할 예정인 활동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아마 어떤 분은 술술 적을 수도 있지만, 나는 해온 게 없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비전이 없다면 하나 세우면 됩니다. 나중에 또 바꾸어도 되지요. 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면 찬찬히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부터 할지 결정해서 시작하면 됩니다. 교내활동부터 차근차근히 해나가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5단계가 정리되었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아마 많은 대내외활동 경험과 자부심 그리고 장학금도 여러분 손안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뿌듯하고 즐거운 캠퍼스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02

외부 교육을 통한 학점 취득 및 실무 경험 쌓기

컴퓨터학부 노수빈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학부 14학번 노수빈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외부 교육을 통한 학점 취득 및 실무 경험 쌓기입니다. 저는 외부 교육을 통해 실제 업무를 경험해볼 수 있었고, 교내 경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전공심화전문가양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 및 교양 학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전공심화전문가양성교육 제도를 활용하여 얻은 긍정적인 효과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의 스펙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분류	내용
학점	3.73 (마지막 학기 재학 중)
외부 교육	1. 서울 핀테크아카데미 (3학년 2학기) 2. K-Shield Jr 정보보호 관리진단 4기 (4학년 1학기) 3. KISA 핀테크아카데미 (4학년 여름방학)
수상	1. KISA 우수 정보보호 취업 인재 2. 제 3회 핀테크아이디어 공모전 장려상
취업 현황	2020 NICE 평가정보 공개채용 IT 직무 최종합격 (채용신체검사 결과 대기 중)

전공심화전문가 양성교육 프로그램이란?

교내 경력개발센터에서는 외부 교육을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전공 또는 교양 학점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외부 교육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 같은 국가기관이나, 한국핀테크지원센터처럼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그러한 성격을 갖는 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주기적으로 개설되고

있으므로 시간만 있다면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공심화전문기양성교육 프로그램은 90시간 이상의 교육은 3학점, 180시간 이상의 교육은 6학점을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양학점으로 인정되며, 학부에서 승인하는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은 제한이 있고, 교육 주관사가 국가기관이 아닌 경우 학점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경력개발센터에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 경험을 어떻게 쌓지?

대부분의 기업에서 원하는 지원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은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고,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인턴을 지원하거나, 교내 현장실습을 지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턴이나 현장실습도 경쟁률이 높다 보니 선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턴이나 현장실습에 떨어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학교라도 열심히 다니자고 생각하게 됩니다. 학교만 열심히 다니면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게 될까요? 사람마다,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만 다닌 사람과, 외부 활동을 병행한 사람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초 정도 고민해 보세요.

“(3,000Bytes 이내) 직무관련 교육 또는 경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전문분야, 글로벌 지원자 중 유관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기술)”

위의 질문을 보고 금방 말할 것이 생각나시나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욱 많을 것입니다. 위의 질문은 2020년 IBK 기업은행 디지털 직무의 자기소개서 1번 문항입니다. 인턴 같은 외부 활동을 병행했다면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 편안하게 작성할 수 있겠지만, 학교만 다녔다면 작성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몇몇 기업에서는 교내 활동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차이는 더욱 심해 집니다. 결국, 취업을 상대적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외부 활동을 통한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컴퓨터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나 SW 마에스트로, BOB 등의 과정을 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하지만 저런 굵직한 교육이나, 대기업 인턴은 선발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은 외부 교육입니다.

외부 교육이란 무엇인가

외부 교육이란 말 그대로 학교 밖에서 듣는 교육입니다. 컴퓨터 분야로 한다면 스파르타코딩클럽이나 코드스테이츠 등의 사설 코딩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외부 교육은 사설 학원을 통한 교육이 아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같은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기관이나 협회에서는 학생,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수했던 교육 중 정보보안 직무에 대한 교육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주관하였고, 핀테크 분야에 대한 교육은 서울특별시와 금융감독원 등에서 함께 주관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들은 채용지원서를 작성할 때 교육 사항(일반적으로 교외)란에 기입할 수 있습니다.

외부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외부 교육이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의 원인은 아마도 교육의 질이 낮을 것이라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일반적으로 학원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 또는 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들은 현재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를 섭외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 진행했던 교육은 금융 IT기업으로 유명한 코스콤에서 수행했습니다. 제가 이수했던 서울 핀테크아카데미의 경우 농협중앙회, 금융감독원, 코스콤, 우리카드, SK 등의 굵직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이 진행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부 교육을 어떤 상황에 신청하는 것이 좋은가?

외부 교육을 듣는 것이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도 다르고, 희망하는 직무에 대한 교육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공대생에 해당하는 저의 경험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외부 교육을 듣기 시작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들은 실제 경험했을 때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 오실 때 선택한 전공도 그와 비슷한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전공하는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Web, App, Server, Infra 등 다양한 분야 중 한 가지 분야를 선택하여 취업을 준비합니다. 저 또한 취업 분야를 선택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고, 정보보안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어 해당 분야로 취업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K-shield Jr 정보보호 관리진단 과정의 공고가 올라왔고, 해당 교육에 선발되어 교육을 듣게 되었습니다. 분명 재미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정보보안 분야는 생각보다 재미도 없었고, 적성에 잘 맞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걸 모르고 보안 직무로 취업을 준비했다면, 결과적으로 뒤늦게 커리어를 다시 바꿔서 이직을 하거나, 취업을 다시 준비하는 불상사를 겪었을 것입니다. 교육 자체는 재미있지 않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경험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만족스러운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스스로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정말로 재미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확신할 수 없다면 해당 직무에 대한 교육을 통해 미리 경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듣고 싶은 전공 수업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매 학기마다 다수의 전공수업을 이수해야 합니다. 웬만하면 관심이 있는 전공과목을 듣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 학기 개설되는 전공과목들은 한정되어 있고, 정원이 모두 차거나, 작년에 개설되었던 과목이 올해에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1도 관심이 없는 과목을 들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저는 시간을 들여서 공부한다면 꼭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외부 교육을 통해 전공학점을 인정받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학교 수업보다 더욱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지만,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더욱 깊고 다양하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라면 외부 교육을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 교육의 장점

첫 번째로 외부 교육을 통해 전공 또는 교양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송실대학교 경력개발센터(job.ssu.ac.kr)에서는 전공심화전문가양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 교육에 대한 전공/교양 학점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교양 3학점과 전공 6학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방학 기간에 이수한 교육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의 학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다음 학기를 보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 수준의 인사이트를 벗어난 경험이 가능합니다. 제가 들었던 서울 핀테크아카데미 교육의 교육생은 대부분 현직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업도 현직자들의 눈높이에서 진행되었고, 학생으로서는 알기 힘든 부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지다 보니 다양한 것들을 추가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는 금융 분야에 대한 도메인 지식의 깊이를 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메인 지식의 깊이는 자기소개서나 면접 등에서 큰 도움이 되었고,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하는데에도 보탬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학기로 갈수록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저는 학기와 방학 중에 교육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을 줄일 수 있었고, 4학년 때 수업을 남들보다 적게 들 수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다 보니 4학년 1학기부터 취업 준비를 조금씩 병행하면서 취업을 일찍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스스로 무엇이 부족한지 금방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직무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실제 상황이 다른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적성에 맞을 것이라 생각하여 취업했는데,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다시 취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리스크를 조금 더 일찍 관리하고 싶다면 외부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교육의 단점

외부 교육의 단점은 쉼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3학년 2학기 때 5전공 2교양을 신청한 상태에서 서울 핀테크아카데미 교육을 병행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수업을 마친 뒤, 753번 버스를 타고 여의도로 가서 교육을 받았고,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외부 교육을 받으면서도 학점 관리를 위해 거의 쉬는 날 없이 공부만 했습니다. 그 덕분에 교육도 이수하고, 높은 학점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만큼 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번아웃이 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좋지 않은 교육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기관과 기업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마다 퀄리티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주관은 국가기관에서 하지만 교육 수행은 작은 민간 업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 커리큘럼의 수준이 낮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교육은 퀄리티가 낮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교육의 수료생들이 작성한 객관적인 후기를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교육 후기는 개인 블로그나 취업 오픈 카톡방을 통해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외부 교육 팁

1. 전공심화전문가양성교육 관련

전공심화전문가양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가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사설 기관이나 대기업의 경우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학원의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을 신청하기 전에 경력개발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전에 해당 프로그램으로 교양 또는 전공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라면 동일한 학점에 대해 반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A라는 교육으로 교양 3학점을 받은 뒤, B 교육을 이수하여 다시 교양 3학점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교양 3학점, 전공 3학점 같이 학점은 같지만 교양/전공으로 다른 경우는 인정됩니다.

- ex) 교양 3학점 / 교양 3학점 (불가)
- 전공 6학점 / 전공 6학점 (불가)
- 교양 6학점 / 전공 3학점 (가능)
- 교양 6학점 / 전공 6학점 (가능)

2. 교육 찾아보기

외부 교육을 찾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주기적으로 직접 관련된 사이트를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의 경우 핀테크 분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지사항과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공지사항을 매 주 한 번씩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한 번 교육을 진행했던 기업은 다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업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간단히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가. https://www.kisa.or.kr/notice/notice_List.jsp 한국인터넷진흥원

나. <https://fintech.or.kr/web/user/main.do>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다. <https://job.ssu.ac.kr/> 송실대학교 경력개발센터

라. <http://snu-fintech.com/> 서울대학교 4차산업혁명 아카데미

마치며

외부 교육을 이수하면서 얻게 된 개인적인 느낌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가장 처음 이수했던 교육은 ‘서울 핀테크아카데미’였습니다. 대부분의 수강생이 금융감독원, 카드사, 은행 등 굵직한 기업의 현직자였고, 섭외된 강사분들도 현직자였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데이터 3법이나 규제 샌드박스 와 같은 제도적인 부분에 시간이 많이 부여되었는데, 이러한 시간이 상당히 따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학생인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실무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무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실제 그 업무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고, 임원분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그러한 사항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작성한 자기소개서의 지원동기와 앞으로의 포부는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해당 기업의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당 분야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금융 IT 취업을 준비했기 때문에 컴퓨터공학이라는 전공 지식 외에도 금융 분야라는 도메인 지식이 필요했고, 금융 분야에 대한 지식을 외부 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메인 지식은 핀테크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었고,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배우는 것들이 지금 당장 쓸모가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나중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분에게 외부 교육을 추천해드리지는 않지만, 상황이 적절하다면 한 번쯤 이수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취업에는 正道(정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했다면 스스로 걸어온 길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뒤돌아봤을 때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을 공유해드린다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취업난을 뚫고 꼭 원하는 곳에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3

성공적인 온라인 학습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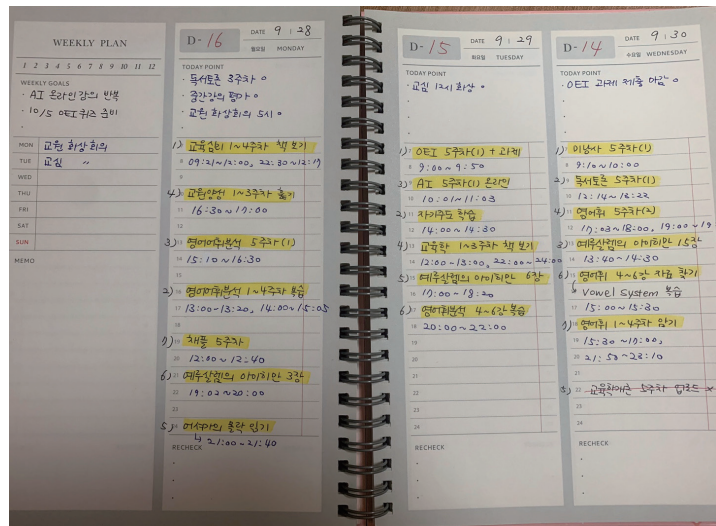
영어영문학과 박지윤

코로나 사태로 인해 2020학년도 1학기부터 현재까지 송실대학교는 비대면 온라인 학습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많은 학생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습 동기 또한 저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공적인 학업 생활을 위해 요구되는 저만의 효과적인 온라인 수업 학습 노하우를 소개하며 다른 학우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과 학업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기가 시작하기 이전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정해두고 이를 왜 지켜야 하는지, 왜 지키고 싶은지, 지켰을 때 나에게 주고 싶은 보상은 무엇인지 등을 생각해 보는 과정을 통해 학습 동기를 자극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모든 과목에서 A+를 받겠다는 목표 학점을 정해두고 이를 달성했을 때 최신 핸드폰 구매라는 보상을 생각하며 학습 욕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학습 목표는 이후 공부할 때 우울감이나 좌절감 등을 극복하기에도 매우 유용합니다. 저의 온라인 학습법은 크게 시간 관리, 학습 코칭, 노트 필기, 복습 방법, 공부 환경, 집중력 향상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간 관리입니다. 온라인 학습이다 보니 정해진 기한 내에만 학습을 수강하면 출석이 되어서, 저는 원래 짜여 있는 시간표가 아닌 저에게 맞는 시간표를 다시 짜서 그에 맞추어 수강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전공이 여러 개 있는 날에는 다른 날의 교양 수업과 시간을 바꾸어 저만의 효과적인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학습 플래너를 유용하게 사용하여 시간을 철저히

게 관리하였습니다. 플래너를 사용하면 강의나 과제 기한을 놓칠 경우를 대비할 수 있고, 날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며 할 일을 해낼 때마다 표시해두면서 성취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그 주에 있는 화상 강의나 과제 마감일, 수업 마감일 등을 상단에 꼼꼼하게 적어주었고 덕분에 과제나 수업을 놓치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일을 기준으로 매일 D-day를 적다 보니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학습 욕구도 자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정해두고 공부하는 방식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제때 해내지 못했다는 좌절감도 생기고 다른 할 일들이 계속해서 밀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시간을 엄두에 두지 않고 공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인식하고 공부하는 것과 마냥 학습에만 치중하는 것은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먼저 정해두기보다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엇을 했는지 적어 두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매번 시간을 확인해가며 공부했더니 할 일을 빨리 끝내려는 욕심이 생겨 더욱더 효과적으로 할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자기 전에는 다음 날 해야 하는 일들을 적어 놓고,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만약, 어제 할 일을 다 끝내지 못했다면 그 일을 먼저 했고 그러한 경우가 아닐 때는 주로 어려운 과목과 좋아하는 과목을 번갈아 가며 공부했습니다. 무작정 아무거나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할지를 정한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하거나 싫어하는 과목은 계속해서 미루는 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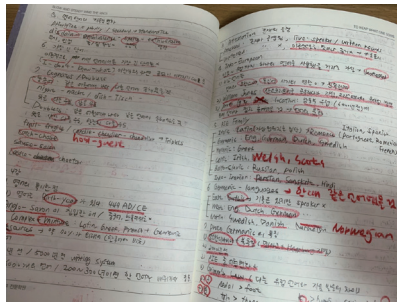
없어지게 됩니다. 지킬 수 있는 만큼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양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본인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지 등을 미리 파악해놓고 그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업 계획을 세울 때 유용하게 사용했던 것은 ‘강의 계획서’입니다. 강의 계획서에는 교육 목표와 평가 항목, 주차별 강의개요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끔 수업의 흐름을 놓칠 때는 교육 목표를 확인하며 이 수업에서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상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차별 강의 개요를 통해 핵심 키워드와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고 수업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하기에도 용이했습니다.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인 1:1 학습 코칭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학습 코치님과 학습 전략 검사, U&I 진로 검사 등을 통해 스스로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상담을 신청하여 그동안 어떻게 공부해왔는지 확인도 받고 학습에 있어서 저의 개인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하여 그에 대한 조언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매회 발전해가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공부 방법들을 시도해보고, 저에게 맞는 방법을 같이 찾아가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학습에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면에서도 혼자 공부하는 느낌이 들지 않았고,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학습 후에 스스로 점검하고 코치 선생님께 피드백도 받으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학습과 관련하여 힘들거나 어려운 점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자신의 학습이 올바른지도 전문 코치님과 이야기 나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온라인 학습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라면 학습 코칭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온라인 학습의 가장 큰 장점은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공과목은 이해력과 암기력이 모두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강의를 적어도 3번은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처음 들을 때는 가볍게 이해한다는 식으로 필기를 하면서 들었고, 두 번째 들을 때는 마지막으로 듣는다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하여 교수님 말씀을 하나하나 새겨들었습니다. 그 후에는, 요약 노트를 반드시 정리하고 수업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나만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시험 기간을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는 다시 정리해본다는 생각으로 세 번째 강의 복습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배속 기능을 활용하여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모르는 것들을 교수님께 바로 여쭙볼 수 있는 것도 온라인 학습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듣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이를 깔끔하게 정리하여 교수님께 쪽지나 메일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수업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지, 얼마나 흥미가 있는지도 교수님께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자기 전 그날 공부했던 것들을 복습하고, 백지 노트에 정리해보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수업을 듣는 것과는 별개로 매일 그날 배운 것을 직접 써보며 기억해 내는 과정에서 머릿속에 체계가 잡혀가고 암기력 또한 증진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공부한 이후에 시험 기간이 되면 전체 시험 내용이 쉽게 암기가 되었고, 매일매일 복습하는 것에서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은 교재나 피피티를 보고 또다시 보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보다는 내가 직접 산출물을 만들어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PIE가설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십시오.

PIE 가설은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unattested된 가설을 말한다. 가설이란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정설이라고 믿어진다. 비교 언어학에서 영어는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스웨덴어 등 여러 다른 언어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친족 관계를 성립할 수 있듯이 간접적이지만 고대 인도어와 다른 유럽 언어들도 그 밀접한 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PIE가설은 1786년, William Jones라는 영국인 판서로부터 제기되었다. 그는 당시 인도에서 한사 생활을 하며 옛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하다가 산스크리트어가 그리스어, 라틴어와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가설을 주장했다. 한편, 이 가설이 나오기 전에는 유럽 언어끼리 비슷하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PIE 가설에서 proto-language의 최초의 장소는 남동부 유럽이며 당시 사람들은 약 6000년 전(B.C 4000년 전)에 함께 모여살다가 점차 흩어지면서 언어도 분화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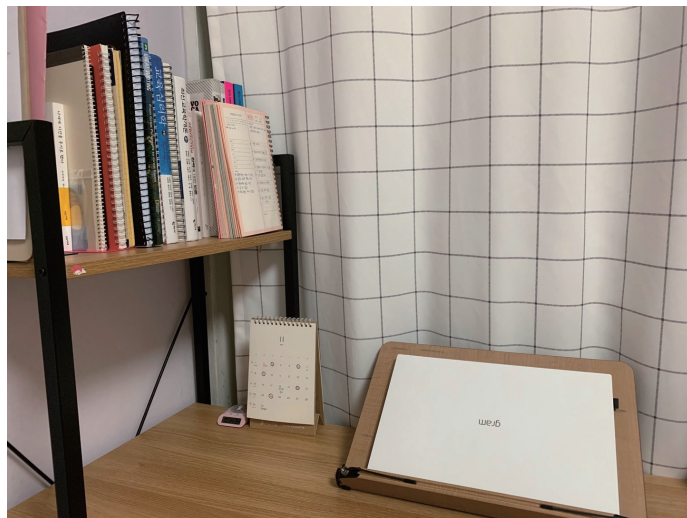
5. Proto-Germanic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Proto-Germanic은 게르만어의 원형으로, 북부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남쪽 지역(덴마크, Hamburg)에서 3000년 전에 사용되었다. Proto-Indo European 중에서 어형 변화가 적다는 특징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Grimm's law인데, 게르만어와 나머지 유럽 언어의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하게 된 원인

내용을 보지 않고 말로 설명해보거나 손으로 써보는 것은 단순히 반복해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기억이 잘 나며 내가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습 전략으로 유명한 메타인지 전략이라고 합니다. 메타인지란 자신이 얼마만큼 아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모르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과 그 계획의 실행 과정을 평가하는 것에 이르는 전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무언가를 배울 때 자신에게 어떠한 구체적 활동이 필요한지 또는 어떤 능력이 요구되는지 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메타인지의 핵심 개념은 자아 성찰을 통한 자기 조절이며 이는 학습자로부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게 하므로 학습 과정에서 꼭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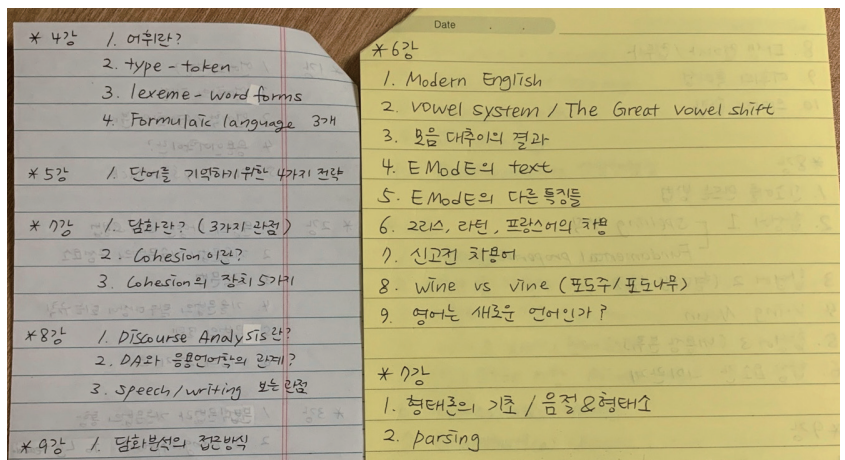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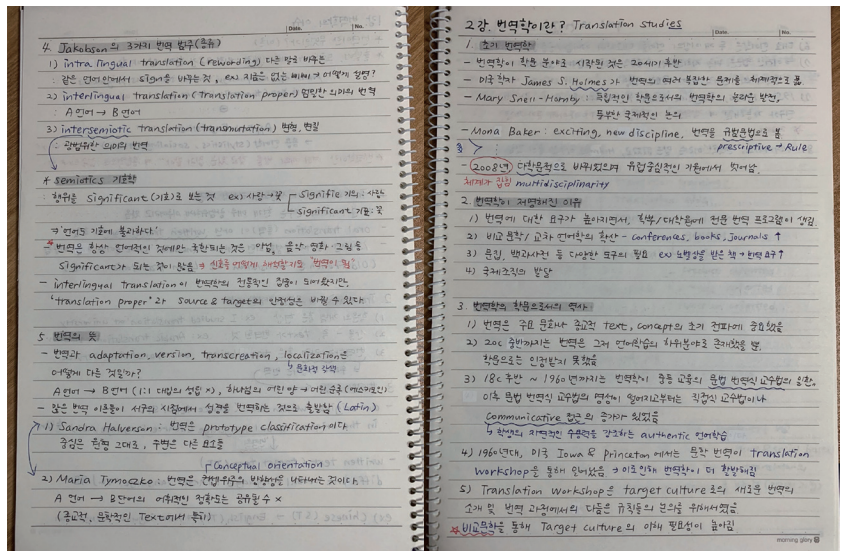
예상 시험 문제를 만들고 답을 적어보는 과정에서는 전체 내용 중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학습자가 아닌 교사의 시선에서, 내가 교사라면 시험 문제로 무엇을 출제할지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는 과정이 내용 핵심 파악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내가 아는 것을 직접 문장으로 만들어 설명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깔끔하고 논리적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학생이 온라인 학습에서는 직접 수업을 듣지 않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교수님 말씀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수업을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에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간을 여러 번 돌아가 다시 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를 연습과 웨도잉을 통해 극복했습니다. 수업을 듣기 전에 오늘 무엇을 배우는지 짧게라도 미리 확인해보는 방식으로 학습에 동기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전혀 몰랐던 내용이어도 연습을 하면서 그 개념과 적게나마 친숙해질 수 있었기에 수업을 들을 때 더 집중하기가 쉬웠습니다. 웨도잉은 교수님 말씀을 똑같이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영어학습법에 사용되는 것인데, 들리는 대로 말하는 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듣기와 말하기 연습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방법이 어색했지만, 교수님을 똑같이 따라 하다 보니 어느덧 수업에 집중하기 쉬워졌고 흐름을 놓치는 경우도 대비할 수 있었으며 듣기, 말하기 실력도 좋아질 수 있던 방법이었습니다.



공부 환경 또한 학습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 사진은 제가 공부하는 장소입니다. 저는 독서실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장소는 불편하기 때

문에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 장소에서 공부해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공부 환경을 찾아보는 것도 학습자에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되도록 한 장소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최대한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공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은 주변에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공부할 때에는 핸드폰, 거울, 사진 등은 최대한 멀리 두었고 책상에 다른 잡동사니가 있지 않도록 깔끔하게 치워두었습니다. 자신의 주 공부 장소가 얼마나 집중에 도움이 되는가에 따라서 학습능력은 크게 달라집니다.



과제나 발표가 있을 때는 최소한 3번의 수정을 거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전공 특성상 글을 쓰는 과제가 많았는데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의 분량으로 쓰지지에 대해 전체적인 틀을 정해 놓았습니다

다. 그 이후로는 맞춤법이나 글의 논리성은 생각하지 않은 채 생각나는 것을 마구 적었습니다. 첫 번째 수정을 할 때는 글의 흐름을 생각하며 순서를 바꾸거나 내용을 추가하였고 두 번째 수정에서는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읽어가며 논리적인 연결을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수정에서는 맞춤법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여 읽어보며 어색한 부분이나 비논리적인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급하게 작성해야 할 때는 완성도 있는 글을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과제 제출 시기를 최소한 1주일 남겨두고 시작하였습니다.

노트 필기를 할 때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검은색으로, 설명을 덧붙이거나 중요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빨간색으로 필기를 하여 저만의 필기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색깔의 펜을 사용하면 이후 복습할 때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색깔의 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정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암기할 때에는 사진을 찍어두듯이 공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번역학에 관한 내용은 '오른쪽 맨 위'에 필기되어 있었다는 것을 사진을 보듯이 기억했습니다. 교재를 암기할 때도 사진을 찍듯이 공부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몇 쪽에 몇 번째 줄에 있었는지를 기억해보며 내용을 쉽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키워드들만 써놓고 무작위로 몇 개를 골라 A4용지에 아는 대로 써보는 연습도 했습니다. 이 방법 역시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갖추고 공부에 대한 재미도 느끼며 삶에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만의 학습 방법을 만들어가면서 이전에 비해 훨씬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시켜야만 하는 수동적인 학습은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괴롭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저의 학습법을 참고하여 송실대학교 학우분들이 뚜렷한 목표와 학습 전략 등을 잘 세우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해 나갈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4

슬기로운 학교생활을 위한
나만의 꿀 TIP

경제학과 배현규

나의 신입생
시절과 내가 한
동아리 활동

고등학교 때부터 경제 과목을 좋아하였던 것이 대학 진학으로 이어졌고 현재 송실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경제학 전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학을 입학하는 새내기 신입생들은 설렘 반 긴장 반의 마음으로 대학생활을 꿈꾸고 있을 텐데, 저의 신입생 새내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저는 1년을 재수를 해서 21살의 나이에 송실대학교 경제학과 새내기가 되었습니다. 신입생들 대다수가 20살이라 입학 전에 긴장도 많이 되고, 나이가 많다고 어울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런 걱정은 정말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신입생들이 20살이지만 재수를 해서 1년 2년, 많게는 n년을 재수를 하고 입학하는 동기들도 있습니다. OT, MT, 예비대학 등등 모임에 참석하면 한 번, 두 번, 얼굴을 기억하게 되고 조별 게임과, 활동들을 하며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니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활동들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입학 후에 학과 소모임 또는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하면 많은 동기들을 사귄 수 있게 되고, 학과뿐만 아니라 교내 중앙동아리에 가입하여 다양한 학과의 사람들과 친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고향이 지방이라서 OT, MT, 예비대학 모두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학과의 동아리에 가입하여 많은 동기들과 선배님들을 사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2학년2학기에 재학 중이고 매우 즐겁게 많은 동기들과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제가 입학 후 활동한 동아리는 경제학과의 ‘이코노미터’ 동아리입니다. ‘이코노미터’는 경제학과 내 소모임으로 금융 분야의 경시대회, 공모전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동아리입니다. 처음 동아리 또는 소모임이 가입을 하면 개강총회라는 1회 모임 후 개강파티를 열게 됩니다. 개강파티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함으로써 새로운 동아리 회원들과 선배 임원들이 친목을 다지기 위하여 맛있는 것을 먹고 가벼운 술자리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술을 못 마셔도 절대 상관없습니다. 강제로 술을 권하거나, 술을 안마시면 눈치를 주거나 이러한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얘기만 하다가 집으로 귀가 하셔도 문제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또한 술을 한 잔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강파티에 참석하여 맛있는 음식들과 음료수를 먹고 재밌는 얘기만 하다가 집으로 귀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코노미터’ 동아리는 신입생 때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주된 활동으로는 ‘삼성 투마로우 솔루션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하여 ‘대중교통 노약자, 임산부 전용 좌석의 효율성’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 공모전을 통해서 버스나 지하철에 빈자리가 충분히 있음에도 배려 좌석제에 앉게 되지 않는 경제적 효익의 감소에 대하여 서술하였고, 공모전을 통해 사회초년생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문제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조원들과 한층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원은 선배 멘토 두 명과 세 명의 동기인 멘티들이 한 조를 이루었고, 발표 연습을 위해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학교생활의 유용한 정보들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학과의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고, 일상생활의 매 순간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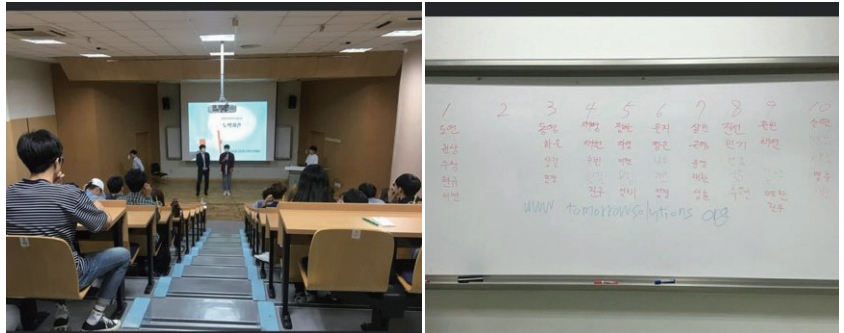
학과 소모임은 특히 남자분들에게 매우 유용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역을 한 후라 수업 시간에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코노미터 동아리에 다시 활동을 함으로써 과의 신입생들과 처음 보는 선배님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2학기에도 개강 파티를 하기 때문에 개강 파티에 참석하여 맛있는 음식들과 재밌는 얘기를 하며 친목을 다졌습니다. 2학기의 주된 활동은 거시 경제에 대해 스터디 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중 미 중 무역 분쟁에 대한 토론을 하였고, 한국이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코노미터’를 통해 2학기에는 국제의 거시경제에 대해 넓은 시각으로 세계무역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학과 소모임 또는 중앙동아리에 가입하여 보다 뜻깊은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만의 꿀 TIP이 있다면 저는 학과의 전공과목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전공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학과의 필수 졸업 요건인 '한경테셋' 시험을 동아리에서 다 같이 준비할 수 있었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공과목과 연관된 동아리 활동을 한다면 전공 공부도 할 수 있고, 취업 시에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기 중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

대학생활을 하며 취업에 필요한 스펙들을 쌓는 것이 쉽지 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공 공부를 할 시간도 부족한데, 어학점수,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봉사활동까지 이 모든 것을 챙기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면서 대외활동을 찾아보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대외 활동은 어디서 찾아봐야 할까요?



제가 추천 드리는 방법은 바로 학교의 봉사 프로그램을 활용해보자입니다.

학교 공지사항을 자주 들어가 보면 대학생 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기도 하고, 복지시설, 각종 기업들의 청년 봉사단 등등 많은 종류의 봉사활동의 모집 공고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모집 공고를 자주 찾아보자가 1순위입니다.

봉사일자	봉사분류 [상세분류]	봉사활동내역	봉사시간
2020. 06. 02	기타(시설봉사)	시설외부 환경미화활동	13:00 ~ 17:00 [4시간 0분]
2020. 06. 01	기타(시설봉사)	시설외부 환경미화활동	13:00 ~ 17:00 [4시간 0분]
2020. 05. 31	기타(시설봉사)	시설외부 환경미화활동	09:00 ~ 16:00 [7시간 0분]

두 번째는 스펙업과 같은 대외활동 사이트를 자주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스펙업에는 모든 대외 활동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에 적합한 대외 활동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학교의 수업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송실대학교에는 ‘섬김의 리더쉽’이라는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섬김의리더쉽’은 강의를 듣고 학교의 연계된 시설 또는 vms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시설에서 봉사활동을 약 20시간 하면 과목이 ‘PASS’ 되는 수업입니다. 1학점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섬김의리더쉽’ 과목은 학교 이수구분표의 ‘기독교관련교과목교양’의 과목에 충족하고 17학번 이하의 학번들에게는 ‘교양필수과목’의 조건에도 충족하기 때문에 졸업을 위한 학점이수를 목적으로 듣기에는 매우 좋은 과목입니다.

저는 고향인 경상북도 영주시에 있는 장애인 요양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요양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한 이유는 저의 군 복무를 장애인 요양 보호 시설에서 하였고, 이는 전역 후에도 꾸준히 불편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전하는 삶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이었기 때문입니다. ‘섬김의리더쉽’이라는 과목명처럼 이는 저에게 나눔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과목을 ‘PASS’ 하기 위해 봉사 활동을 필수로 해야 하고 봉사 시간까지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학점을 취득하면서 동시에 봉사시간 확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택 봉사활동도 뽑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의 봉사활동 꿀 TIP 이었습니다.

교과목을 활용한 공모전 출전



봉사활동 실습일지

작성일 : 2020년 05 월 30 일

인적사항	성명	배현규	
	소속	경제학부/학과	2학년

대학생활을 하면서 기뻐던 경험 중 한 가지는 바로 공모전에 출전하여 입상한 것입니다. 현재 교내에서 주최하고 있는 많은 공모전뿐만 아니라 대외 공모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생활을 하면서 공모전까지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재학생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꿀 TIP은 바로 '교과목을 활용한 공모전 출전'입니다. 교내 교양 과목을 잘 살펴보면 '창업교과목' 또는 '해커톤, 캡스톤 교과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중 제가 수강한 교과목은 '오픈소스를 활용한 실전창업'이라는 교양 과목이었습니다. 문과생인 저는 '오픈소스'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수강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과생분들도 절대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팀을 짜서 공지를 해주시는데, 마음이 맞는 분들 또는 지인과 함께 수강한다면 같이 팀을 하고 싶다고 교수님께 말씀드리면 같은 조로 팀을 꾸려서 공지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지인이 없고 혼자 과목을 수강한다고 할지라도 다양한 학과의 사람들과 비율을 맞춰 팀을 꾸려 공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팀원이 활동을 하는데 각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맡아서 진행하면 충분합니다. 문과생분들은 IT쪽 지식은 해당 전공 분야의 학생들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안을 작성한다든지, PPT를 만든다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분야를 맡아서 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교양 과목의 장점은 교양 과목 과제가 '해커톤 또는 공모전의 제출할 계획안을 구성하는 것', 또는 'PPT 제출'이기 때문에 해당 과목의 과제를 하는 것만으로도 공모전에 출품할 작품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저의 꿀 TIP은 해당 과목을 수강하면서 과제를 제출하면 저절로 공모전의 출품작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교과목의 과제로 제출한 자료들을 그대로 공모전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학점과, 공모전 참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 시간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교과목을 활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서 주최한 ‘오픈소스기반 창업모델 발굴 해커톤’에 참가하여 우수상이라는 값진 결과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대학생생활에서 시간은 금이고 매우 소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내 지원 프로그램 활용

8	[취업지원 > 특강] 이공계 취업 릴레이 토크쇼(실시간 스트리밍 특강)	설문조사	이수중	활동후기
7	[취업지원 > 특강] 11월 17(화),19(목)오프라인 선배멘토링 ☞ Dell Korea 선배멘토링(경영학 졸업, 영업&마케팅)	설문조사	이수중	활동후기
6	[취업지원 > 특강] 11월 17(화),19(목)오프라인 선배멘토링 ☞ 오뚜기 선배멘토링(정보사회학 졸업, 데이터분석팀)	설문조사	이수중	활동후기
5	[취업지원 > 특강] 11월 14일(토요일)온라인선배멘토링 ☞ LG U+ 선배멘토링(글로벌미디어학 졸업)	설문조사	이수중	활동후기
4	[취업지원 > 특강] 11월 14일(토요일)온라인선배멘토링 ☞ 티몬 선배멘토링(산업정보시스템공학 졸업)	설문조사	이수중	활동후기
3	[취업지원 > 특강] 11월 14일(토요일)온라인선배멘토링 ☞ 삼성전자서비스 선배멘토링(경영학 졸업)	설문조사	이수중	활동후기
2	[진로(진학)지원 > 특강] 공인회계사 시험 설명회	설문조사	이수중	활동후기
1	[취업지원 > 특강] 2020년 하반기 채용 대비 취업특강 ☞ 외국계기업 채용의 이해	설문조사	이수중	활동후기

재학생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프로그램은 바로 ‘교내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다. 교내의 '교수학습혁신센터' 등 'fun시스템'에 접속만하면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입니다. 공모전, 논문, 글쓰기 등등 많은 교내의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취업준비생을 위한 취업전략' '선배 멘토의 취업 전략' 등등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매우 많이 진행 중입니다.

그중 제가 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취업지원(특강)' 프로그램입니다.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대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공기업,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등 어느 분야로 취업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송실대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취업지원(특강)'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당 분야에 취업한 선배 멘토들의 취업 전략기를 들을 수 있었고, 해당 분야에서 하는 업무와, 어떠한 능력이 필요로 하는지 등등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에 한계가 있고, 정보의 신뢰성 또한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동문이자 선배인 멘토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조언도 얻고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다면 성공적인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 정보에 관련한 저만의 꿀 TIP은 바로 "교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입니다.

나의 취업 준비 전략

마지막으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취업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저의 진로는 증권사, 은행과 같은 금융권 또는 금융공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해당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높은 수준의 학업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학업만으로는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고, 보다 구체적으로 제가 원하는 직무를 파악하여 직무에 맞는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금융권 중에서도 대체투자 중 하나인 부동산 투자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자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고,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 학교의 '부동산학개론'이라는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경제에서 주최한 "한경 디지털 ABCD포럼" 강연에도 참관하였고 "디지털 시대에서의 금융의 미래", 신한금융지주에서 주최한 "신한금융 스타트업 컨퍼런스" 강연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플랫폼"에 대한 전망과 "디지털 자산의 보편화와 전문화"에 대한 강연을 들었고, 취업 방향에 부합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

여 활동 경험을 쌓는 것이 다른 경쟁자들 보다 우위를 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저의 꿀 TIP은 바로 “직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하자”입니다. 저보다 많은 활동과 좋은 성과를 낸 학우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입생부터 군 전역 후 2학년 2학기 재학기간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하고 작성한 저의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실대학교에 입학하실 새내기분들과 재학생분들 모두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만들어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송실대학교 파이팅!

05

Ideas Worth Spreading

경제학과 이승희

대학생이 되고, 많은 것을 하고 싶었던 제게 1학년은 너무나도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2학년을 맞이하게 되고, 이대로 있다가 송실의 우물 안 개구리가 될 것 같아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닥치는 대로 활동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첫 대외활동 동아리는 발표, 시사 토론 동아리인 [유니테드]였습니다. 유니테드에서는 자유 PT, 테드 PT, 시사토론, 1분 스피치, 위클리 등의 활동을 진행했고 연합 세션으로 경쟁 PT와 강연회에 참여했습니다. 에세이는 각 파트별 사진과 준비하면서 느낀 점, 준비하는 과정, 이 모든 것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었던 이유로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자유 PT입니다. 자유로운 주제로 10분 PT를 하는 것으로, 저는 제가 가장 관심 있는 MBTI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MBTI의 특징에 대해 발표했고, 여러 문항들을 준비해 간단한 MBTI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PT를 구성했고, 자신이 나온 성격유형을 질의응답시간에 설명해 주었습니다. 좋아하는 주제였기에 더욱 흥미를 갖고 준비할 수 있었으며, 청중들이 참여하는 PT를 구상했기에 더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

각합니다.

다음은 테드 PT입니다. 인문/사회/과학/예술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그 분야에 맞는 TED 강의를 시청 후 PT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실제 저는 동아리 활동 중 테드 PT를 2회 진행했고, 전공이 인문/사회 쪽이었기 때문에 과학과 예술을 선택했습니다.

과학에서는 [수면부족]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고, 예술에서는 [예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수면부족이 삶에 미치는 영향과 뇌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함으로써 청중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테드 PT-예술분야는 공식적인 동아리 마지막 활동 날이었기 때문에 예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발표한 후, 동아리원 모두는 '발표'라는 예술 활동을 한 '예술가'이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결론으로 발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유 PT 보다는 개념을 많이 알아야 했기 때문에, 대본 암기도 쉽지 않았지만 더 많은 연습 끝에 대본 없이 PT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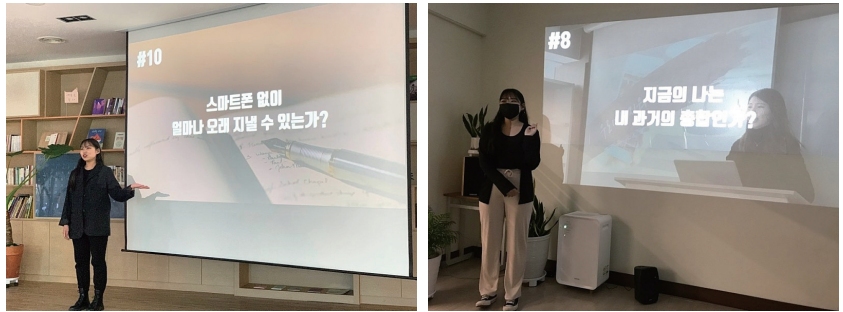
세 번째는 시사토론 활동입니다. 4명이 팀이 되고, 찬성과 반대는 랜덤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저는 [대입에서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주제와 [동물 실험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PT와는 또 다르게 많은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준비해야 하고, 상대방이 갖고 오는 자료의 신빙성이 있는지의 여

부도 반론이 될 수 있기에, 많은 자료를 찾고 이를 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시사토론 활동을 하면서, 직접 참여할 때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지만 청중 입장에서 바라볼 때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각 팀이 준비해온 자료를 함께 보고 그 자리에서 생각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1분 스피치 활동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주제가 주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제를 알고 생각할 시간은 오직 1분입니다. 항상 미리 주제를 알아서 많은 것을 준비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던 제게는 많은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생각한 시간도 1분이었고, 1분간 생각한 내용을 1분 동안만 말해야 했기 때문에, 평소의 시사, 상식을 아는 것이 중요했고, 저만의 생각을 확립해나가는 말 하기를 연습했습니다.



유니테드의 활동은 끝났지만, 매주 한 주제에 대해 생각을 정리하고, 저만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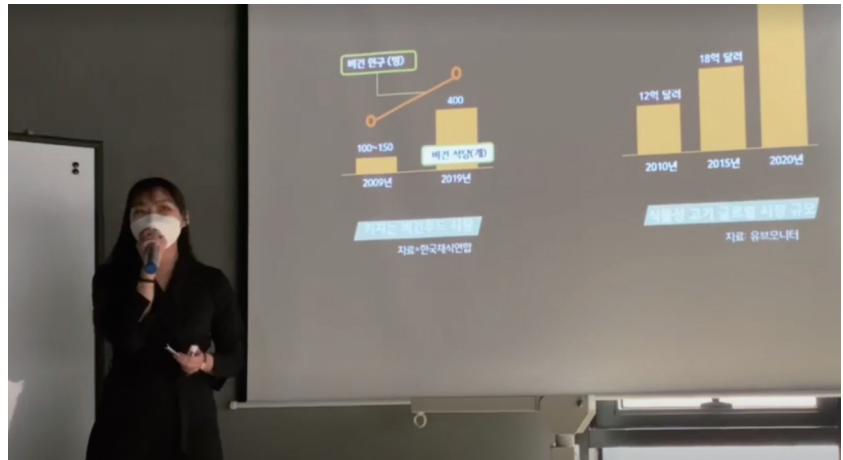
공식적인 활동의 마지막은 위클리입니다.



동아리 모임 시간 중 제일 첫 시간에 하는 활동으로, 매주 일어났던 시사 6가지를 짚어주는 PT입니다. 시사는 각 분야에서 하나씩 발췌해야 하며, 자신이 선택한 시사 중 그 주의 가장 크게 다뤄야 할 시사는 [라이징 이슈]와 [이

슈오브이슈]로 다뤄집니다. 라이징 이슈와 이슈오브이슈로 선정된 시사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각도 함께 발표합니다. 매주 발생한 이슈를 듣고 그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활동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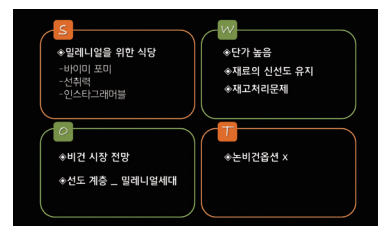
다음은 연합 세션입니다. 유니테드는 경쟁피티와 강연회, 총 2번의 연합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경쟁 피티는 피오피와 함께 했으며 [TASTE]라는 주제로 스토리텔링, 정보 전달, 셀링 파트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Taste는 맛, 취향 어느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했고, 저는 셀링 파트를 맡았기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들을 위한 레스토랑을 직접 만들어 셀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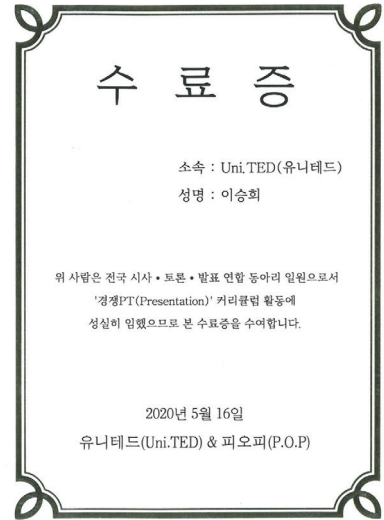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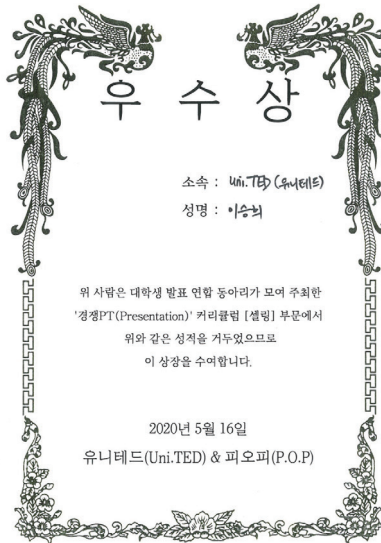
밀레니얼 세대들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개성과 취향을 중시하며, SNS 활용에 적극적이고,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 민감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건들을 위한 레스토랑을 고안해냈고 메뉴들을 개발했습니다. 각 메뉴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에 육류는 일절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레스토랑을 SWOT 분석을 활용해 분석했습니다. 강점과 기회는 더욱 드높이고, 약점과 위협을 대비하며 성공적으로 셀링을 마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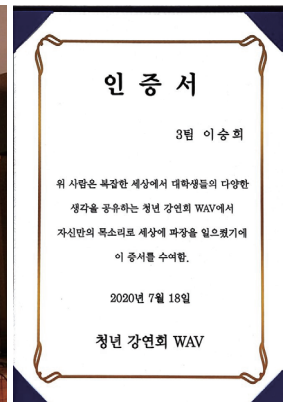


물론 모의로 진행되었지만, 이를 통해 물건 하나라도 셀링을 할 때 SWOT 분석과 같은 분석 틀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더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PT를 할 수 있는지 크게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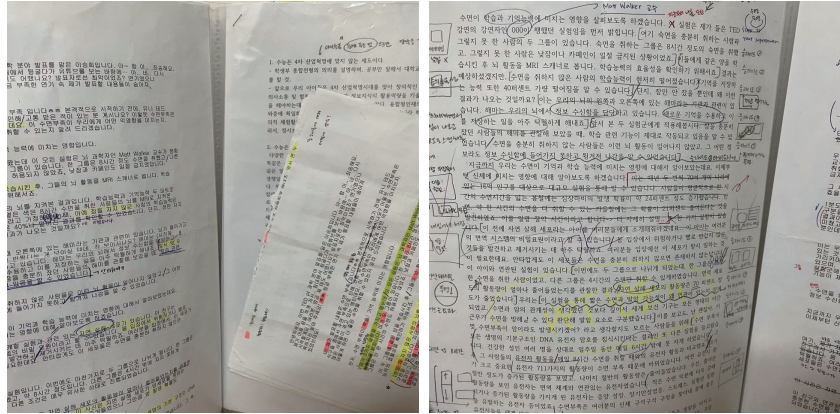


입상을 하는 좋은 결과도 있었기에 더욱 값진 행사였습니다.

마지막은 청년 강연회입니다. 3개의 동아리가 함께하고 이로 청중은 약 300명 정도 있었습니다. 많은 청중 앞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라는 취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주제는 border와 borderless였으며, 저희 팀은 borderless를 맡게 되었습니다. borderless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하던 중, 어찌다 어른이 된 우리는 19살과 20살의 경계에 사로잡혀 어릴 적 꿈꿔왔던 꿈을 포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어른의 경계를 부수자는 주제로 PT를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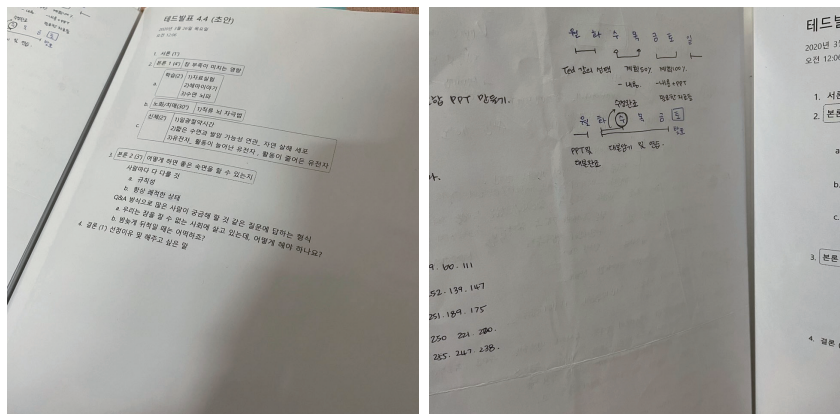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 또한 어릴 적 꾸었던 그 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서서히 잊어갔던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청중 앞에서 저희만의 색깔로 발표를 해 나간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모든 활동을 후회 없이 해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계획성 있게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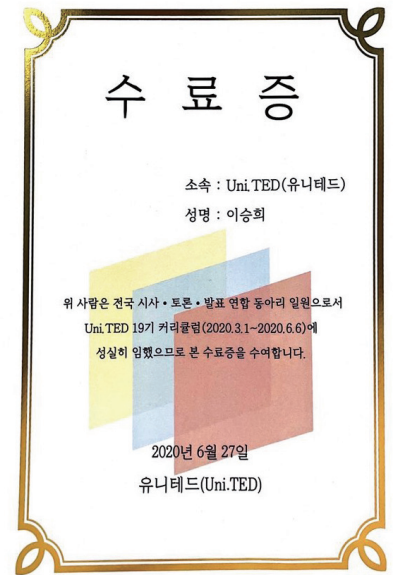


실제 제가 발표 전 준비했던 대본들입니다. 우선, 강조할 단어들이나 키워드를 형광펜으로 칠해놓고 높낮이나 발음 등에 신경 쓰며 연습했습니다. 이런 연습은 이후 모든 발표에서 적용했고, 보다 퀄리티 있는 발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PT는 매주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 2주간의 시간을 투자했고, 초안을 작성해나가면서 PT를 구상했습니다. 각 날에 조금씩 꾸준히 해놓았을 때 보다 심층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고, 이후 제 방법은 동아리원 대부분이 칭찬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진행했기 때문에, 학업과 병행하며 동아리활동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유니테드의 가장 큰 장점은 PT 후 피드백지를 작성해 발표자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발표 이후 장단점을 알고 이후 발표에 이를 적용해 실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유니테드 덕에 많은 청중들 앞에서 PT도 할 수 있었고, 제 생각을 보다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유니테드에서 만난 개개인에게 배울 점이 정말 많았고, 저도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자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생각은 퍼져야 한다.'는 모토를 갖고 달려온 한 학기의 활동, 한순간마다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니테드 덕에 2학기 때는 더 많은 활동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학에 와서 가장 잘 한 일을 뽑으라고 한다면 주저 없이 '유니테드에 지원서를 넣고 모든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지금 당장 움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찾고, 움직이다 보면 분명 무언가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06

휴학 없이 인턴을 할 수 있다? 학점연계 인턴십!

글로벌미디어학부
조유경

들어가며

3학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며 실무 경험이 없다는 것이 저의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의 휴학 경험이 있어 인턴을 위해 다시 휴학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점을 인정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인턴십을 알아보던 중,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관련 회사를 대상으로 전공자를 연결해 주는 프로젝트이기에 제가 원하는 분야의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리하는 사무국이 있으므로 실무와 거리가 먼 잡무를 할 가능성이 적고, 우리 학교는 스파르탄 교육원에서 추가로 관리를 하므로 학점 인정을 받으면서도 원하는 실무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현업에 계신 분들의 다양한 경험과 시각, 그리고 기획 방법과 업무 절차 등을 배우고 싶었고, 실습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기반으로 스스로 역량을 키워 회사 구성원으로서 회사에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본 인턴십에 4학년 마지막 학기에 지원할 계획으로 7학기까지 전공 6학점을 제외한 모든 학점 이수를 끝냈습니다.

기업 선택과 서류작성

인턴을 할 때는 기업, 그리고 직무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취업을 하는 것에 있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업을 선택하면서 첫 번째로 고려한 사항은 직무와 프로젝트의 주제였습니다. ICT 인턴십인 만큼, 대부분 기업이 개발 직군을 모집하기에 기획 직무를 희망하는 저에게 선택지가 넓지는 않았습니

젝트의 주제가 관심 분야인지, 혹은 인사이트를 기를 수 있는 주제인지를 고려했습니다. 기획과 디지털마케팅, UX 직무 위주로 일차적으로 지원할 회사를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려 사항은 지역이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기에 서울, 경기권 회사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러 회사에 방문할 때, 대중교통으로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지도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은 있는 곳인지를 고려했습니다. 인원이 너무 적은 곳은 인수인계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제외했습니다.

회사를 선택한 후 바로 서류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양식은 모두 인턴십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있던 양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력서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 관심 직무, 대학생활 중 했던 모든 활동과 자격증을 포함하여 간단한 설명과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기본 문항이 아예 없는 자유양식이었기에 지원 동기와 역량을 포함해 일반적인 자기소개서에서 요구하는 것들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경험을 중점으로 문항을 구성하였습니다.

지원은 총 세 번 가능하였기 때문에 세 번 모두 지원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희망하는 직무가 서비스 기획이고, 그다음으로 원하는 직무는 웹 기획 및 개발이었기에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는 기본적인 문항은 그대로 쓰되, 핵심이 되는 경험과 배운 점 등은 지원하는 회사와 직무별로 다르게 작성하였습니다. 디지털마케팅과 기획 직무에 지원할 때에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조할 수 있는 대외활동, 그리고 학교에서의 팀 프로젝트 활동 위주로 작성하였고, 웹 기획 직무에 지원할 때는 수강하였던 웹 관련 프로젝트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면접

서류 마감 후, 세 곳 모두 합격 통보를 받았으며 이후 면접 전형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사전에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면접에서 보여드릴 포트폴리오를 간단하게 제작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있는 것이 저의 활동 사항이나 프로젝트를 시각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고 준비성까지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접을 진행한 회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보고 세부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저의 역할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면접은 모두 30분 내외로 진행되었습니다.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그리고 프로젝트 위주의 면접이 진행되었으며, 면접이 끝난 후에는 대부분 회사가 일주일 내로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두 회사에 합격했고, 그중 면접 시 느꼈던 기업의 분위기와 제가 배울 수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실습 기업을 선택하였습니다.

사내 문화

인터뷰를 시작하고, 처음 경험했던 사내 문화 중 가장 인상적인 건 월요일 9시마다 전 직원이 모이는 조회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IT 트렌드 중 하나의 주제에 대한 5~10분 사이의 강의를 보고 사장님 말씀이나 광고사항을 전달합니다. 첫 출근 날에는 이 시간에 자기소개를 하였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8시나 9시를 선택해 출근하고 퇴근은 출근 시간에 따라 17시 혹은 18시에 합니다. 저는 8시에 출근하고 17시에 퇴근해 저녁에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것들이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문화는 부서마다 다른데, 제가 속한 기획팀에서는 월요일 오전에 주간업무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제가 하는 일들을 말씀드리고 해당주의 업무를 배정받습니다. 또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의 이슈나 진행 및 변동 사항을 공유합니다. 인터뷰로서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것인지 물어봐 주시기도 하고, 업무를 배정하기 전에는 할 수 있는지, 업무량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확인해 주십니다.

실무 경험

현재 회사에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전기차 오픈마켓 구축' 업무에 투입되어 실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테스트하는 단계에 있으며, 홈페이지 UI 관련 오류 사항을 검토하고 피드백하는 등의 간단한 QA 업무와 FAQ,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정리 작업을 초반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클라이언트와 진행한 화상회의에 참여해 회의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현재는 추후에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진행할 교육 자료를 기획하며 작성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회사에서 진행 중인 다른 프로젝트 관련 업무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솔루션 구축' 프로젝트에서는 테스트를 돕고, 경로와 화면 개요, 조작 방법 등을 정리한 관리자

매뉴얼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진행 중인 광고 데이터 수치를 엑셀 파일로 정리하거나 새롭게 진행할 사업에 대한 간단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가 새로운 상품의 총판을 맡게 되어 상품을 판매할 나라장터와 학교장터 이용 매뉴얼을 숙지하고 교육 자료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배너로 노출할 기사를 선별하고 제목을 작성하는 작업도 하였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주간업무 보고를 통해 한 주간 제가 진행하였던 업무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주간업무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회원 수나 건적 수 등의 통계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주로 구축 중인 전기차 오픈마켓 웹 사이트의 테스트를 하며 필요한 문서 작성입니다. 또한, 클라이언트 교육 시에 사용될 매뉴얼 자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된 업무 외에는 진행하고 있는 광고의 결과 데이터를 엑셀에 정리하며, 애플리케이션 내에 삽입할 기사 링크를 선별해 전달하는 작업도 하였습니다. 또, 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큰 프로젝트 진행 중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 기획서나 문서를 정리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인턴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턴 경험에서 얻은 것

저는 여러 가지 업무를 경험하며, 그리고 회사 구성원분들과 소통하며 진로에 대해 더욱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고 싶은 일이나 대학원 진학에 대한 생각은 없는지, 정확히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신경 써주시고 조언을 해 주셔서 다방면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 프로젝트나 협력사와의 미팅도 경험해보라며 참관시켜주셔서 직접 의견을 내거나 발표하지는 않아도 현업에서 미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메일로 소통하는 법, 팀 내 회의 진행 방법과 업무 분담, 회사 내 의사결정 과정, 조직에서 공유되는 서류 작성법 등 기본적인 사항들을 배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어렵지 않은 것들이지만, 실무 경험이 없었다면 스

스로 배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리한 업무를 맡기는 일은 없었고, 배정해 주시는 업무를 해결할 시간도 충분히 주셨습니다.

아직 근무하고 있지만, 직무에 대한 실무를 경험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내 문화 경험과 외부 업체와 메일을 통해 소통하는 법, 미팅 참관 등의 경험이 앞으로의 취업이나 인생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에 앞서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실무에 투입되어 개발자나 다른 직무 분들과 소통하는 법, 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었던 점이 이번 인턴십을 하며 얻은 가장 큰 성과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얼마나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새롭게 배울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인턴십에 지원한다면

추후 인턴십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조언하고 싶은 점은 공고 내용을 꼼꼼히 살필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고에서 확인한 것들을 면접 시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회사 내 정확히 어떤 업무를 맡게 되며 어떤 부서에 배치되는지, 사내 복지나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인턴십 진행 경험이 있는 회사인지, 없다면 지도나 실습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등의 사항이 사소하게 보여도 전부 기업을 정하는 것에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면접 시 지원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사내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위에 적은 사항들과 추가로 “면접을 한 명씩 보는 이유가 있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표님은 지원자 개개인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답변으로 사내 분위기를 조금은 파악할 수 있었고, 실제로 실습을 진행하며 느낀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턴에 지원하는 시점부터 선발이 목적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면접 시에 본인이 하고 싶은 업무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 지원 공고를 통해 파악한 회사에서 하게 될 업무와 맞는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도 추천합니다.

끝으로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교내외 활동의 모집 시기마다 공고가 올라오는데, 최대한 많은 것들에 도전해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양한 활동을 해두면 나중에 인턴, 혹은 취업을 할 때 나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 역시, 경험한 활동을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낸 것이 인턴 합격에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활동 경험을 활용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은 물론, 기획 직무에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내 활동으로는 친구들과 직접 만들어 활동했던 봉사단, 매 학기 열리는 독서토론 세미나 위주로 참여하였고, 대외활동으로는 전공 관련 봉사 활동부터 시작해 기자단, 서포터즈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어려워도,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야의 활동을 하다 보면 내가 흥미 있는 분야에 대한 대략적인 감이 잡힙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활동을 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얻을 수도 있으며 예상치 못한 기회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활동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어 가고 얼마나 성장할지, 그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가장 높은 목표를 바라보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제가 좋은 성과를 거두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저는 전공이나 원하는 직무와는 거리가 먼 '녹색성장 서포터즈'라는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환경 분야나 외교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지는 않지만, 이 활동을 통해 콘텐츠의 기획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제작하는 것, 그리고 정책제안서를 작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최우수상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활동했기에, 외교부 장관 명의의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고, 상의 특전으로 방콕에 있는 국제기구 UNESCAP에 방문할 기회와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기회를 얻었으며, 이때 만난 세계의 사람들,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근무하시는 선배님들께 인생, 그리고 진로에 대한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운지 고민하고 도전하다 보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는 것 같습니다. 주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뤄가는 것, 끊임없이 탐구하는 과정이 어떤 활동을 하던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7

[송실대학교 홍보대사 미소(MISO) 14기]

컴퓨터학부 함정완

2017년 3월, 군 입대를 앞둔 당시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우리 학교 홍보대사를 모집한다는 게시글을 보았다. 그 글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 왠지 모를, 가슴에서 무언가 뜨거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올랐고 성인이 된 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하지만 입대를 해야 했기에 3년 뒤를 기약해야 했다.

2019년 복학을 하고 꿈에만 그리던 홍보대사에 지원했다. 그날만을 위해 부대 내에서도 꾸준히 홍보대사 공식 블로그에 들어가 게시되어 있는 글들을 탐독하며 의지를 다졌고 홍보대사가 되는 상상을 하며, 되고자 하는 열정을 잃지 않았다. 여러 번의 고민을 거듭한 끝에, 지원서를 작성했다.

지원서는 최대한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고 노력했다. 여기서 여러 대외 활동이나 동아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나만의 지원서 작성 팁을 한 가지 말하자면,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다. 그러나 이것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책을 읽거나 실제로 다양한 경험을 직접 해보는 등 여러 직, 간접적인 경험을 통한,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이 탐구하고 생각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군 복무 기간 동안 많은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관련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이 사고의 확장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전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고심 끝에 쓴 서류로 면접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면접에서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열정과 간절함, 딱 이 두 가지뿐이었다. 1학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놀기만 했기 때문이다. 면접은 2차까지 있었는데 1차 면접에 들어갔을 때, 내 예상대로 다른 지원자들은 학생회 등 나보다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

었다. 그러나 그 들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다. 평소 면접을 볼 때 면접관들도 똑같은 사람이며 나는 내가 할 말만 후회 없이 다 하고 나오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눅 같은 것은 들지 않았다. 내 열정과 간절함의 크기는 누구보다 크다고 생각했고 또 그것을 잘 어필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면접 질문은 자세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열정과 간절함 이 두 가지 키워드만 가지고 면접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답변을 이와 연관 지어 말했다.

1차 면접을 잘 보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통과했고 2차 면접에 갈 수 있었다. 2차 면접도 1차 면접과 같은 자세로 보았고 1차 면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3년 동안 열망했던 홍보대사에 합격할 수 있었다.

지원서 작성은 앞서 말했으니 면접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해보자면, 면접은 그저 대화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는 면접에 자신이 있다. 물론 나 스스로 순발력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이보다는 일종의 나만의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이라 생각한다. 면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중 다수가 면접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속된 말로 쫓고 시작한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흔히 하는 말이지만 내가 이 면접에 합격해야 저 사람들이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지, 지금은 그저 흔한 삼촌, 이모, 아저씨, 아줌마일 뿐이다. 그래도 면접이라는 무거운 분위기에 압도당할 수도 있기에 나는 아예 '저 사람들이 뭘데 나를 평가하는가'라는 생각을 머리에 박아놓고 들어간다. 그들이 내가 모르는 것을 물어본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모른다고 하고 앞으로 알아 나가겠다고 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 그리고 준비한 것을 물어봤을 때 그들이 내가 준비한 만큼 나의 답변을 이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나만의 자신감을 장착하고 당당하게 들어가면 그만큼 자세도 편해지고 시선 처리도 자연스럽게 위질 것이며 면접 자체가 훨씬 수월할 것이다. 물론 평소 성격이 대범한 사람들은 쉽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마인드를 지니고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스스로 세뇌를 시켜야 한다. 나도 처음에는 어려웠다. 하지만 계속 머릿속으로 면접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보며 끊임없이 연습했고 그 결과 큰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나만의 깨달음은 당연하게도 홍보대사 면접만을 통해서 얻어진 것은 아니다. 이후 말하겠지만, 대외활동, 동아리, PT 등 여러 실전 경험을 통해 더욱 굳어질 수

SKT T프렌즈 3기, 한국장학재단 홍보대사 11기

있었다. 나도 처음에는 무작정 부딪혔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았다. 하지만 이 과정은 나를 더욱 성장시켜준다. 중요한 것은 일단 해 보는 것이다. 먼저 지원해보고 저지르는 게 우선이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느새 전 보다 더욱 성장한 본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2월, 홍보대사를 수료하고 나니 바빴던 작년과 달리 너무 여유로웠다. 갑자기 찾아온 이 여유로움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다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여러 대외활동을 찾아보았고 SKT T프렌즈와 한국장학재단 홍보대사가 눈에 들어왔다. 지원하기 위해 지원서를 열었는데, 그 순간 '그냥 하지 말까'하는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다른 학우들도 대외활동을 지원하려다 나를 열심히, 다양하게 나타내라고 요구하는 많은 문항과 그 외 제출을 요구하는 포트폴리오, 영상 등을 보고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이 많은 걸 언제 다 써'라고 하며 포기하는 것으로 안다. 나 또한 그랬지만, 이거라도 지원을 해서 활동을 해야 마음이 편할 거 같아 눈 딱 감고 지원서를 작성하고 지원했다.

SKT T프렌즈에 한 번 지원해서 합격을 해 보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지원하기가 훨씬 수월했다. 대외활동 지원을 고민하는 다른 학우들에게도 눈 딱 감고 한 번만 온 힘을 다해 써보고 지원해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러면 자신은 관련 활동도 없고 어필할 것도 없으며 영상이나 카드 뉴스 같은 콘텐츠도 만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한다. 물론 이런 제작 능력과 SNS 계정을 보는 대외활동도 꽤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며 좋은 대외활동도 매우 많다. 나도 T프렌즈에 지원할 때 홍보대사 경험만 있었고 그 외에 영상은 일절 만들지 못했으며 카드 뉴스도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 당시 나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영상을 제출하라는 칸이 있었는데 안내자니 떨어질 것 같아 그냥 T프렌즈라는 글씨를 A4 용지에 크게 쓰고 그것을 등에 붙인 후 1분 동안 팔굽혀 펴기하는 영상을 제출했다. 편집은 할 줄 몰랐기에 당연히 하지 않았다. 나만의 아이디어로 나를 나타낼 수 있기만 하면 된다.

지원서 문항 작성도 마찬가지다. 그냥 나의 이야기를 쓰면 된다. 가령 내가 음식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고, 운동을 좋아할 수도 있으며 그 외 내가 아는 나의 특징이 있을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잘 풀어쓰면 된다. 한 번 하는

것이 어렵지 딱 한 번하고 나면 그 뒤부터는 생각보다 할 만하다. 나도 지원이라는 그 한 번의 가장 큰 고비를 넘기고 난 후, 대외활동 과제로 계속 카드 뉴스를 만들고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수준의 카드 뉴스는 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영상 편집은 손도 못 댔었지만, 지금은 어플로 유튜브 영상 흥내 정도는 낼 줄 알게 되었다.

이후 한국장학재단 홍보대사로 지원할 때 이 경험들이 포트폴리오로 쓰일 수 있었고 지원서 항목으로도 쓰여 처음보다 훨씬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었다. 나는 기왕 지원하는 거 대기업이나 유명한 공기업 활동을 하고 싶어 규모가 큰 곳들만 지원했지만, 생각대로 안 된다면 비교적 하기 쉬운 교내 활동이나 다른 기업 대외활동들을 찾아서 하는 것도 매우 추천한다. 계속 말하지만, 어찌 됐든 한 번 해보고 나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될지 감이 오기 때문이다. 나도 잘 못 하긴 하지만, 모두 스스로를 믿고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한국어문화 한자능력검정시험 1급, HSK 5급 자격증

어릴 때부터, 특이하게 유독 한자를 좋아해 초등학교 5학년 때 한자 2급을 취득했었다. 군 복무 시절, 계급이 올라감에 따라 군 생활이 여유로워지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생겼는데 이대로 있다가는, 청춘을 낭비하는 것밖에 안될 것 같았다. 그래서 군대에서 준비할 수 있는 한자나 공부하기로 했고 미처 따지 못했던 1급에 도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군필자들은 알다시피 군대 안에서 공부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단 접수부터 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국가공인 자격증 응시료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접수하고 나니 이대로 원서비를 날릴 수는 없다는 생각에 몸이 자연스레 움직이게 됐다.

나 같이 시험 기간이 닥쳐야 공부를 하거나 무언가를 걸어야 공부를 하게 되는 학우들은 이 방법을 추천한다. 공부를 하나도 안 했더라도 일단 접수부터 하고 본다. 그러면 어떻게든 공부를 하게 된다.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매우 효과적이다. 나는 공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한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공부가 암기라고 할 수 있다.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암기를 해야 한다. 우선 참고서의 목적으로 책 한 권을 샀는데 이 책은 말 그대로 참고용으로 썼다. 책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두꺼워서 보기도 힘들

뿐더러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시험에 다 나오지 않는다. 책은 사전처럼 모르는 것을 찾아보고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을 푸는 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한자는 인터넷에 잘 찾아보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매우 많다. 그 자료들을 프린트하여 한자를 외우는 것이 좋다. 나도 약 3,500자 한자를 정리해 놓은 자료를 프린트하여 그것을 항상 들고 다니며 시간이 날 때마다 보면서 외웠다. 하다 보면 웬만한 한자들은 외워질 것이고 이제 거기서 헛갈리는 한자들을 체크하며 외우고, 점점 그 범위를 좁혀 나가면 된다. 모든 한자를 다 외워야 하는 것도 맞지만, 한자는 부수라는 게 있어서 부수로 기반으로 외운다면 암기가 훨씬 수월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으며, 간혹 음독 정도는 짝어서 맞출 수도 있다.

문제 유형은 음 훈 작성, 유의어 및 반의어, 사자성어, 장음 구분, 한자 쓰기 등이 있지만 이 유형 대비는 철저히 기출문제로 하는 것을 추천한다. 참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공부하려면 한 챕터 끝내는 데만 한 달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기본 한자들만 어느 정도 다 외우고 쓸 줄 안다고 하면 바로 기출문제를 풀며 감각을 익히고 거기서 나온 문제들을 위주로 공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나는 제대로 된 공부는 약 한 달 정도 하고 나름의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었는데 바로 기출문제 위주의 공부 덕분이었다. 다른 주관사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응시한 한국어문화는 고등학교 모의고사처럼 대부분 반의어, 유의어, 사자성어 등의 문제가 기출문제에서 출제된다. 그러므로 기출문제만 한 가득 뽑아 놓고 그것들만 계속 풀면서 오답 노트를 만들며 공부하면 쉽게 합격할 것이다. 물론 기출문제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자료가 매우 많다. 개인적으로 내가 살면서 잘한 것 중 하나를 꼽자면 바로 어렸을 때 한자를 공부해 놓았다는 것인데 여전히 자주 쓰이는 우리 말 중 대부분 단어가 한자로 되어 있기에,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쉽게 유추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어휘력도 훨씬 증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가 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한자를 모르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꽤 많은 차이가 나는 걸 보았기 때문이다.

2019년 2학기가 끝나고 겨울 방학을 맞았을 때, 이번 방학 때는 무엇을 하지 생각하다 한자를 잘 알면 중국어 공부가 훨씬 수월하다는 이야기가 번뜩 떠올라 살면서 중국어를 접해본 적도 없는데 과감하게 HSK 4급 학원을 등

록했다. 수업을 갔는데 첫 주에는 당연히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왔다. 하지만 수업을 들을수록 눈이 뜨이기 시작했다. 흔히 한자와 중국어 이야기를 하면 중국어는 간체자를 쓰기 때문에 한자와 다르다고 하는데 한자 자격증 시험에도 간체자 파트가 있어 공부를 해야 하고 그 양이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공부해야 한다. 모르는 간체자가 더 많았지만, 기존의 한자와 간체자에 대한 지식으로 글을 읽어나가다 보니 점점 익숙해졌다. 중국어가 간체자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한자와 같은 글자도 많고 간체자와 일반 한자의 비율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일대일 정도다. 그래서 간단히 문법만 배우고 나니, 어려운 문장도 비교적 쉽게 독해가 되었고 늘 그랬듯이 공부를 별로 하지 않고 학원 수업만 들었음에도 실력이 빠르게 늘었다.

한자를 베이스로 한 독해를 하다 보니, 독해 실력에 비해 그것을 읽는 것과 듣기 실력은 한참 모자라도 모자랐다. 한자마다의 발음은 비교적 외우기 쉬웠는데 듣기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출제 측도 이러한 중국어 듣기의 어려움을 아는지, 실제 HSK 듣기는 흔히 토익이나 수능 영어처럼 설명을 통한 추론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70% 정도의 문제가 보기에 있는 단어를 대놓고 말해준다. 그럼 그 답을 고르면 된다. 물론 나머지 30% 정도의 문제는 제시문을 어느 정도 듣고 상황을 이해해야만 답을 맞힐 수 있다. 5급은 그 비율이 6 대 4 정도 되는 것 같다. 학원에서도 듣기를 다 들으려 하지 말고 들리는 것을 짚으라고 가르쳐 주었고 난 그것을 충실히 따랐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다 틀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듣기는 들리는 것을 짚으면 되고 쓰기 파트는 흔히 말하는 템플릿이 존재해서 그것들을 전부 다 외워 템플릿을 토대로 문장을 구성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수를 관찮게 받을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철저한 자격증을 위한 공부이다.

중국어 공부도 당연히 되기는 하지만 말하기와 듣기는 거의 못하는 수준이기에 제대로 중국어를 공부하려는 사람들은 듣기부터 천천히 받아쓰기 등을 하며 말하기도 동시에 공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러나 단기간 자격증을 위한 공부라면 이렇게 해야 합격할 수 있다. 독해 공부는 사실 문법 외에 별로 하지 않았다. 한 것이라면 단어 책만 펼쳐놓고 훑어보는 수준이었는데, 여기서 한자 지식이 깊게 활용된다. 한자를 잘 알면 단어 외우기가 매우 쉽다. 예를 들면 용기라는 단어를 한자로 알고 있다면 그 단어는 외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단지 중국어로 발음하는 법만 익히면 된다. 대부분 단어가 이런 식이라서 영어 단어를 외울 때처럼 기를 쓰고 외우지 않았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하루에 200~300단어 정도를 훑어보는 식으로 단어를 익혔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한자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고 제2외국어를 공부해 볼 생각이 있다면 중국어 공부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19년 겨울방학 때 4급을 취득하고 20년 여름방학 때 5급을 취득하였는데, 6급은 어려울 것 같지만 5급까지는 방학 때 잠깐 공부해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공부를 시작할 때 강남의 한 학원 주 4회 한 달 반을 등록하여 다녔고 5급을 할 때는 주 2회 두 달 반을 한 달만 하고 안 다녔는데 아무래도 학원이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주기도 하고 나의 경우에는 돈이 아까워서라도 억지로 공부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처음 도전한다면 학원을 추천한다. 물론 독학을 잘할 자신이 있고 의지가 굳다면 독학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

취업사관학교 - 취업 키움 반

3학년 2학기를 시작할 무렵 경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사관학교라는 프로그램에 신청했다. 취업사관학교 취업 키움 반은 이제 취업을 생각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5번의 전문 취업 상담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겨울학기 현장실습까지 연계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담당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취업 준비를 위한 갈피를 잡아주시는 형태로 진행된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교과 활동 및 대외 활동과 취득한 자격증, 그리고 여러 경험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고, 원하는 직무에 대해 상담 또한 해 주신다. 그리고 간단한 숙제를 내주셨는데, 스스로 직무 관련 채용 공고를 탐색하여 해당 직무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알게끔 해 주신다. 그 외에 자기소개서 첨삭을 해주시며 조언을 받고, 또는 남은 학교생활 동안 보완해야 하는 점을 함께 이야기해 보며 알아 나갈 수 있다.

이제 슬슬 취업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도 해야 하는데 막막하게만 느껴진다면 멀리서 정보를 찾으려 하지 말고 교내 경력개발센터를 이용하여 알아나가는 것을 추천한다. 경력개발센터에는 이러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선배 멘토링, 1대1 개인 취업 상담, NCS 강의 등 다양한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되니 다들 많이 이용하여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08

대외활동을
시작하는 방법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현민서

대외활동은 시작이 가장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외활동은 경쟁을 거쳐야만 가능하고, 경쟁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외활동은 실속이 없기 마련입니다. 글쓰이는 1년간 멘토가 되어 멘티에게 멘토링을 해주고 장학금을 받는 대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활동을 하고 싶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계시거나 대외활동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에게 이 에세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늘 '보람찬 대학생활'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의미 있는 봉사활동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듣고, 대학교 밖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는, 대학생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맘껏 즐기는 멋진 대학생이 되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생은 갑자기 주어진 자유에 현혹되어 짜릿한 순간에 몸을 맡기는 데에만 열중하기 때문에, 보람찬 대학생활을 하기에는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 역시 1학년 1학기 때에는 하는 게 술 마시는 것과 친구들 만나는 것뿐인데 왜 늘 시간이 부족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1학년 1학기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적응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온 관심과 노력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학기에 도 계속 술자리에 참석하고 노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나는 나중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누가 나한테 일을 시키고 싶어 할까 하는 걱정 때문에 대외활동을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막연히 대외활동을 찾기 시작했

습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는 물론이고 무슨 대외활동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한 것은 카페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색창에 ‘대학생 대외활동’을 치면 유명한 카페가 하나 나옵니다. 이 카페(카페명을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에 가입을 해서 가장 처음 알게 된 건, 대외활동에는 공모전, 동아리 활동, 기업의 서포터즈 활동, 봉사활동 등이 전부 포함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타이머자들의 글과 댓글을 보고 대학생들이 주로 어떤 대외활동을 선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보통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 가능하고, 활동 지원금 또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봉사 시간을 인정해 주는 대외활동을 선호하며, 무엇보다 자신의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되는 대외활동을 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대외활동을 하려는 궁극적인 목표는 취업이라는 것입니다.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점은 대외활동을 위해 휴학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쌓아둔 스펙이 없어서 취업을 위해 스펙을 위한 대외활동이나 자격증 취득을 하려는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시장 조사를 하고 나서 제가 어떤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1. 어떤 활동을 하는 가
2. 주 활동 지역에서 활동이 가능 한가
3. 대외활동을 함으로써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 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잘 해낼 수 있는가

당연한 말이겠지만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내가 대외활동을 하는 이유에 적합한 활동인가’와 비슷한 말입니다. 즉, 자신이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활동인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외활동을 찾는다면 친목 위주의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은 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후회하거나 동아리를 탈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 역시 그러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지원할 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잘 해낼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르치는 것에 매우 소질이 없거나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초등학생 멘토링 봉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 활동 지역에서 활동이 가능 한가

대외활동은 당연히 본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 다행인 점은 우리 학교가 서울에 위치해있고, 더 좋은 건 서울 대부분의 지역을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대외활동은 서울 또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서울에서 활동할 수 없으면 가입이 제한되는 동아리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부산이나 대구, 울산, 천안 등과 같이 교통이 편리하거나 주변 도시들과의 연계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활동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송실대학교 학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대외활동에 있어서 지원이 자유롭습니다. 물론 대면 강의 중이라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 꼭 2시간 거리의 본가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 평일에 활동할 수 있는 대외활동에만 지원하였습니다. 즉, 자신이 활동 가능한 날짜와 시간, 장소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이를 고려하지 않아서 힘들다고 하는 친구가 꽤 있었습니다.

대외활동을 함으로써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대외활동이 나의 어떤 영역을 발전시키고 내가 어떤 부분을 소모하거나 포기해야 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간을 많이 뺏긴다고 생각되는 대외활동은 활동을 하면서도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고, 힘들다고 느껴지는 순간 활동을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의 요소를 전부 고려해서 저의 활동비를 지원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외활동을 우선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비 총당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아무 활동 없이 금전만 지원하는 것은 대외활동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 장학금은 선발되기도 매우 어렵고, 그것 역시 다른 활동을 해야 자기소개

서에 쓸 말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제가 뭔가 하고 그 대가로 뭔가를 받는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활동이 기업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멘토링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내 멘토링 활동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고, 그 경험으로 고등학교에서는 교외에서 멘토링 봉사활동을 매주 하기도 했습니다. 멘토링 봉사를 하고 장학금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을 총 세 군데에 지원했는데, 첫 두 군데는 떨어지고 마지막 하나를 합격해서 9월부터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송실대학교 유세인트의 공지사항에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따로 검색하거나 포스터를 보고 신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세인트 공지사항을 잘 활용하면 좋은 활동과 지원들이 많습니다. 보통 멘토링 봉사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지속됩니다. 멘토링이라는 활동 자체가 단기간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의할 점은 이런 활동은 중간에 휴학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합격 후, 휴학 계획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대외활동마다 다르지만, 제가 지원했던 모든 멘토링 프로그램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전부 봐야 했습니다. 처음과 두 번째 지원한 프로그램에서는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은 1학년 2학기 마치기 전에 지원했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없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지원한 프로그램은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지원했는데, 고등학교 생활과 더불어 2학년 1학기, 그리고 1학년 겨울방학 때의 경험을 상세하게 썼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 항목에는 대학생이 되어서 했던 멘토링 활동에 대해서 적으라고 나와 있었지만, 대학생이 되고는 학원 아르바이트 외에는 전혀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 했던 멘토링 활동에 대해서 적었고, 그에 따른 생활기록부 봉사 란을 첨부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총 8,000자 중 6,000자 가량을 채운 것 같습니다. 항목별로 2,000자씩 4문항이었는데, 이것을 5일 안에 채우려니 힘에 부쳤습니다. 만일 저와 비슷한 활동을 하고 싶으시다면 전년도 자기소개서 항목을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히 자기소개서 테마를 정한 것은 아닌데, 전체적인 흐름을 '현재 내가 돈이 필요한 상황'이면서 '과거 멘토링 활동을 통한 보람'을 느꼈고, 앞으로의 '멘토링 활동에 대한 자신감'으로 잡았습니다.

교내 활동에서의 경험도 자기소개서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소재가 됩니다. 송

실대학교에는 편시스템이라는 비교과 지원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송실대학교 편시스템을 최소 주 2회는 들어가 봅니다. 각종 공모전이나 팀을 이루어 활동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멘토링 활동만을 해야지라고 마음먹고 아르바이트를 한 것은 아닙니다. 우연히 겨울방학 중 친구가 하던 수학 학원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위권 중학생 아이를 전담하여 가르쳤고 결국 성적 향상을 이루어냈다는 경험을 적어서 이것이 제 멘토링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어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멘토링 봉사의 시스템과 활용을 미리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을 어필했습니다. 기존의 어떤 경험이 대외활동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시작이 가장 어렵지만, 저처럼 아르바이트로 연결고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시작하고 나면, 그다음 대외활동은 더욱 쉽게 할 수 있고, 그다음 대외활동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대외활동을 하고 싶으시면, 당장 아무거나,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일단 시작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를 통해 1차 합격자가 선발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면접 대신에 설문조사 형태의 인성검사를 했고, 3주에 걸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은 재단 소개, 장학금 지급과 멘토링 활동에 대한 유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니다. 멘토링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멘티(또는 멘티들)의 학업을 봐주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생 수준에서 충분히 가능한 활동이었기 때문에 매우 만족스럽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매회 활동 일지를 작성하고, 월말에는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대외활동은 학업이랑 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대학교의 학기는 8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랑 비슷하게, 한 번 학점이 곤두박질치면 전체 학점 복구가 힘듭니다. 물론 재수강으로 보완할 수 있기는 하지만, 학점을 보는 대외활동과 장학금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학업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신청하면 모두 무산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치를 충분히 고민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학기 중에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벅하다면, 방학에만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훨씬 좋습니다.

2020 즐거로운 송실생활 에세이 공모전 우수사례집

발행정보

발행처	송실대학교 교수학습혁신센터
발행일	2021년 1월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송실대학교 신양관 202호
전화	02) 828-7136
홈페이지	https://citl.ssu.ac.kr
제작	아이프린트 POD센터(02-)

※ 이 책의 저작권은 송실대학교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